

남양주시-다산정약용함, 문화·안보 교류 업무협약

이호진 기자 입력 2026. 1. 22. 16:49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구본철 다산정약용함 함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해군 다산정약용함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기반으로 문화·안보 분야 교류를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남양주시와 다산정약용함이 갖고 있는 정약용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구본철 다산정약용함 함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다산 브랜드 자산 공동 활용, 민·군 교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해양·안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시는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인 다산정약용함이 갖는 상징성을 활용해 '다산 정약용'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12월 다산정약용함이 해군에 인도되는 시점에 맞춰 공식 자매결연도 체결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와 해군이 정약용이라는 이름 아래 만나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게 돼 의미가 깊다”며 “시민과 장병 모두에게 뜻깊은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양주시를 방문한 해군 관계자들은 협약식 후 정약용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고, 다산 철학 특강과 궁집·정약용 편그라운드 탐방, 전통 다도 체험 등 공연연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